

社說

예비후보 행태 점입가경

6월4일 포천시청 보결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선된 예비후보들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다.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다. 포천시청이라는 자리가 자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결국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가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소신도 없고 신의도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출마의 뜻이 있으면 과감히 출마의 뜻을 밝히고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다. 어느 후보는 어떨고, 또 다른 후보는 어떨고 하는 식의 없는 말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물론 예비후보 본인들이 하는 말이 아닐 수는 있어도 예비후보 캠프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예비후보들은 없는 사실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출마를 포기하고 준비해 도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들은 누구누구와 연대가 되면 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마를 안 한다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포천시청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 무조건 선거에 출마하고 보자는 식이다. 이번 선거가 본인이 당선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뿐이다. 포천이라는 도시가 처한 상황이 뭐고, 현안 문제가 뭔지를 알고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출마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이 왜 포천시청 후보로 출마하는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포천시청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포천시청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흔히 공복 혹은 머슴이라고 말하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자신이 포천시청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복,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중소기업체에 취직할 때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취직이후에 어떻게 근무할 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16만 포천시민을 대표해 포천시청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출마하게 된 동기조차 설명을 못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포천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6년이 20년 후의 포천지역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때만 되면 선거판에 나오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다. 포천시청을 왜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면서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연과 지연, 학연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뭔가 얻어 보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는 믿을 사람이라고는 유권자들 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누구누구와 잘 알기 때문에 포천시청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의 포천시를 내다보면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식물분류 역사 광릉숲에서 듣다

한국식물분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워크숍개최

광릉숲에 자리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박중서)은 5월16일 한국식물분류학회(회장 오병운) 창립 4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릉숲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던 우리나라 식물분류학 분야의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를 원로 교수들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광릉숲의 식물,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대한 발표 등이 포함된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광릉숲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앞에 '광릉'이라는 글자가 붙은 식물들이 광릉요강꽃(오른쪽 사진), 광릉골무꽃(왼쪽 사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널리 알려진 광릉숲은 우리나라 식물분류역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00년 가까이 광릉숲은 식물분류연구자들의 식물공부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장이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식물들을 발견하는 연구 재료의 창고가 되어왔다. 이우철, 오용자, 김윤식교수님 등 대부분의 식물분류공부를 광릉숲에서 시작했던 우리나라 학계의 원로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스승부터 이어져 내려온 광릉숲과 더불어 시작된 식물분류연구의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식물공부하는 후학들에게는 두 번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국립수목원에서 그간 조사된 '광릉숲의 식물'에 대한 소개와 국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작성한 '국가표준식물목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 워크숍이 지난 우리나라 식물분류역사를 되짚어 보고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며, 아울러 학계와 국가가 좋은 파트너 힘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병욱 통합민주당 후보사무실 개소

손학규 대표 등 100여명 지지자 참석

통합민주당 포천시청 이병욱 예비후보는 19일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인천 웅진군 한광원 국회의원과, 이철우 전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이효승 위원장, 장명재 전 국회의원 후보, 시도의원, 이병욱 후보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포천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하면서 포천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인근 지역에 비해 낙후된 포천이 이제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향후 남북한이 하나로 발전하게 될 때 포천은 행정의 중심지, 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포천이 발전하는데 경륜

과 지역을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병욱 후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시도의원들이 통합민주당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선거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예비후보는 또 "산적한 포천시 현안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질박한 주민들의 삶을 무시하고 있는 지역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포천발전을 위해 새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시민들의 무한한 참여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통합민주당 포천시청 이병욱 예비후보는 19일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포천경찰서는 5월1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고객만족(CS) 위한 무궁화 포럼’

포천경찰서 소홀지구대 김혜란 경위 특강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5월 13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 및 고객만족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고객만족(CS) 향상을 주제로 한 소홀지구대 김혜란 경위의 특강 ▶각 기능별 담당현안사항 토론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서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종렬 서장은 훈시를 통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 자기발전을 위한 자기계발에 노력할 것, 운동·취미 등 즐거운 삶에 투자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양 서장은 직원에 대한 내부만족을 위해 합리적 당직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희망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 변경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삼재인)는 2008년 5월부터 저소득 계층 아동 복지사업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드림스타트'로 전환해 시행한다. 시는 2007년부터 소홀읍 송우리 지역 저소득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복지, 보육, 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포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 이후에도 드림스타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대상 아동과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어르신 푸른대학 자원봉사단 창단

포천시 보건소는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 5주년을 맞이해 지난 7일 어르신 푸른대학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오디션 실시해 어르신 푸른대학 참여자 중 54명을 선발했다. 자원봉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전하는 포천시 보건소 노인 건강돌봄보이로서 민요봉사단 13명, 실버댄스봉사단 26명,

고전무용봉사단 15명으로 위촉장이 수여되었다. 자원봉사단 단장은 가산면에 거주하는 이진호 어르신이 선출됐고 민요봉사단 반장은 신음동에 거주하는 송완례 어르신, 실버댄스봉사단 반장은 신북면의 김향 어르신, 고전무용봉사단 반장으로 신음동의 유정숙 어르신이 선출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보건소는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 5주년을 맞이해 지난 7일 어르신 푸른대학 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쇄인 김규석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0일 ~ 5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 5. 10	포천신문 제412호 발행
2008. 5. 20	포천신문 제413호 발행
2008. 5. 31	포천신문 제414호 발행예정